

기술분석보고서 경기관련소비재

엣지파운드리 (105550)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신춘봉 연구원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엣지파운드리(105550)

적외선 센서 및 고성능 열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기업정보(2025.11.20기준)

대표자	남용현, 박찬영
설립일자	2006.05.12
상장일자	2014.07.11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경기관련소비재 가변저항식센서, 전자식센서,
주요제품	자동차용센서(APS, TPS, IAPS, SLS) 제조

시세정보(2025.11.20기준)

현재가(원)	1,563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224
발행주식수	78,307,051
52주 최고가(원)	5,230
52주 최저가(원)	1,457
외국인지분율(%)	3.23
주요주주	에이아이코어비즈(주), 한화시스템(주), 엣지파운드리(주), 우리사주조합

■ 적외선 센서 및 자동차용 변위센서 전문기업

엣지파운드리(이하 동사)은 2006년 5월 자동차용 변위센서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센서 전문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쇄전자·전자기응용·열영상 적외선 기술을 기반으로 액셀·브레이크 페달용 센서(APS, BPS, SLS) 및 적외선 열영상 센서·카메라 모듈을 개발·제조하고 있다. 2024년 12월 한화인텔리전스(주)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2025년 3월 합병을 완료하여 기술 및 사업 역량을 확대하였다.

■ 핵심기술 기반의 고성능 열영상 센서 및 모듈 개발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적외선(IR) 센서 및 열영상 모듈 기술이다. 본 기술은 3~14 μ m 파장대의 열복사 에너지를 감지하여 영상화하는 기술로, 냉각식·비냉각식 방식에 따라 군수, 산업, 의료,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동사는 InSb, HgCdTe, Superlattice 등 고감도 소재를 활용한 VGA·QVGA 급 센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자율주행(ADAS)용 야간 인식 카메라, 드론·산업용 열화상 장비 등 응용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다. 평가대상기술은 기존 자동차용 센서 사업 대비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향후 매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글로벌 열영상 시장 성장세 및 합병 시너지 기반의 중장기 확장

글로벌 열화상 센서 시장은 국방·산업·전장 분야 중심으로 2022년 이후 연평균 6%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ADAS·드론·보안·에너지 진단 등 신규 응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한화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 생산 자동화 및 품질체계를 강화하고, 국방·우주·보안 등 공공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안전, 의료 진단 등 다분야로의 적용이 기대되며, 향후 대량생산 체계 구축 및 AI 영상처리 기술을 결합하여 센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360	-9.2	-20	-5.7	-54	-15.0	-8.45	-4.69	67.7	-124	1,536	N/A	1.43
2023	370	2.9	-48	-13.1	-213	-57.6	-34.34	-19.53	85.8	-479	1,219	N/A	2.10
2024	373	0.7	-51	-13.6	-180	-48.3	-27.08	-15.27	71.2	-324	1,214	N/A	2.08

기업경쟁력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및 생산역량	자동차용 변위센서(APS-BPS-SLS)와 적외선 열영상 센서·카메라 모듈을 동시에 보유하여 자동차·산업·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함. 합병을 통해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함.
연구개발 기반 신규 산업 진출 가능	적외선(IR) 센서·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드론, 산업안전, 의료 진단 등 신규 응용 시장 진출이 가능함. 한화 계열과의 합병으로 국방·우주 등 공공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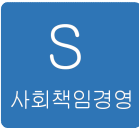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자동차용 센서	- 가속페달(APS), 브레이크(BPS), 변속(SLS) 등 차량 제어 위치 감지 - 고신뢰성·고내구성 기반의 정밀 제어 및 안정성 확보	 Alexander Ing 구조 채택 ▶ 안정적인 MIM. 8 Step 제작으로 공정 간소화 대부분인 소성을 CMOS 공정과 호환 가능 수율 99% 이상 달성 ▶ 생산 효율성 향상, 원가절감 효과 극대화
열영상 센서	- 3~14μm 파장대의 열복사 에너지를 영상화 - Dielectric, Metal Oxide 기반 고감도 센서 적용 - 자율주행(ADAS), 산업안전, 드론, 국방·보안 감시 등 활용	

시장경쟁력

자동차·산업 전반 적용 기반의 수요 대응력	동사는 자동차용 변위센서(APS-BPS-SLS)를 주력으로 1차 벤더형 공급 기반을 갖추고, 적외선 열영상 센서·카메라 모듈 비중 확대를 추진 중으로 다양한 산업 수요에 대응 가능.
IR 열영상 센서 기술 경쟁력	평가대상기술은 적외선 파장대역·적외선 신호 검출 방식에 따라 군수·보안·의료·산업·모빌리티 등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하며, ADAS/야간인지 등 차세대 수요처 부상.
맞춤형 공급능력 및 합병 시너지	한화인텔리전스와의 합병 완료로 공공·국방영역 사업기반과 생산·품질 체계 강화가 기대되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안력 확대 가능.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환경경영	◎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 및 공정 적용 확대 ◎ 적외선 센서 제조 과정의 에너지 효율화 및 폐기물 저감 추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경영체계 구축 및 친환경 생산설비 개선 수행
 사회책임경영	◎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산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
 기업지배구조	◎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운영 ◎ 내부신고 및 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 공정거래 및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 구축 및 지속 모니터링

I. 기업 현황

반도체 및 센서 기술 선도기업

동사는 2006년 설립된 센서·반도체 전문기업으로, 자동차용 변위센서와 적외선(IR) 열영상 센서·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제조하며, 2024년 한화인텔리전스와의 합병을 통해 산업·국방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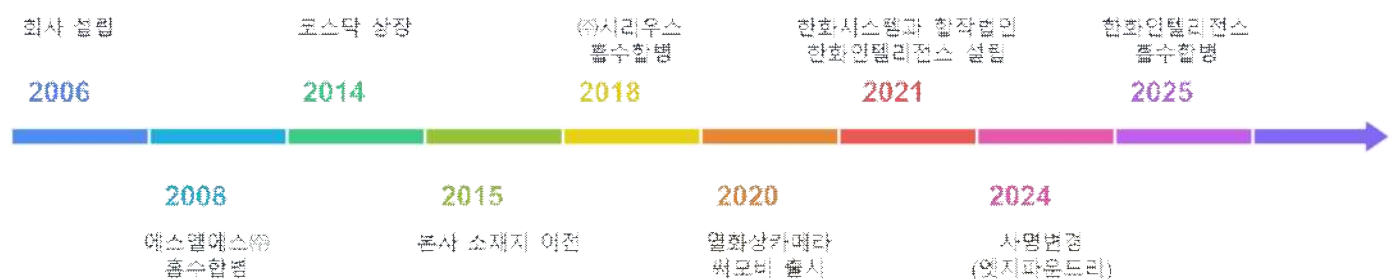
동사는 2006년 5월 자동차용 변위센서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센서 및 반도체 전문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85에 위치하며, 인쇄전자·전자기응용·열영상 적외선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용 변위센서(APS·BPS·SLS), 적외선(IR) 열영상 센서 및 카메라 모듈을 개발·제조하고 있다. 동사는 주력 기술인 평가대상기술(적외선 센서 및 열영상 모듈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국방·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한화인텔리전스(주)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2025년 3월 합병을 완료함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기술 시너지를 강화하였다.

■ 주요 연혁 및 대표이사 주요 이력

2006년 대전에서 설립된 이후 동사는 자동차 1차 벤더형 센서 공급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4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외형을 확장하였다. 2019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같은 해 한화시스템과 합작법인 한화인텔리전스(주)를 설립하여 국방 및 산업용 센서 분야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2년 100% 출자 자회사 티더블유인베스트먼트(주)를 설립하였으며, 2024년 5월 사명을 '㈜트루윈'에서 '엠티파운드리(주)'로 변경하였다. 대표이사 남용현은 설립 초기부터 센서사업을 총괄하며 기업을 이끌어왔으며, 2024년부터 박찬영 공동대표와 함께 자동차·국방·산업용 센서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핵심기술 중심으로 적외선 열영상·AI 융합 영상처리 분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합병을 통한 생산·품질체계 고도화로 미래차·국방·보안 산업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다.

그림 1. 주요 연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남용현 대표이사는 센서 및 전자기응용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기술경영 전문가로, 동사 설립이후 자동차용 변위센서 및 적외선(IR) 센서 사업을 주도해왔다. 동사의 코스닥 상장(2014년)을 이끌며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립하였고, 이후 자동차·산업·국방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2024년부터는 박찬영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대표 체제를 구성하여, 평가대상기술(적외선 열영상 센서 및 카메라 모듈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차 및 첨단 방산 분야의 고도화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 종속회사 및 주주현황

종속회사의 명칭은 티더블유인베스트먼트(주)로, 동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 및 금융 관련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편, 2024년 12월 한화인텔리전스(주)와의 합병이 결의되어 2025년 3월 합병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합작법인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대주주는 에이아이코어비즈(주)이며, 2024년 3월 기준 남용현 대표이사로부터 변경되었다.

표 1. 종속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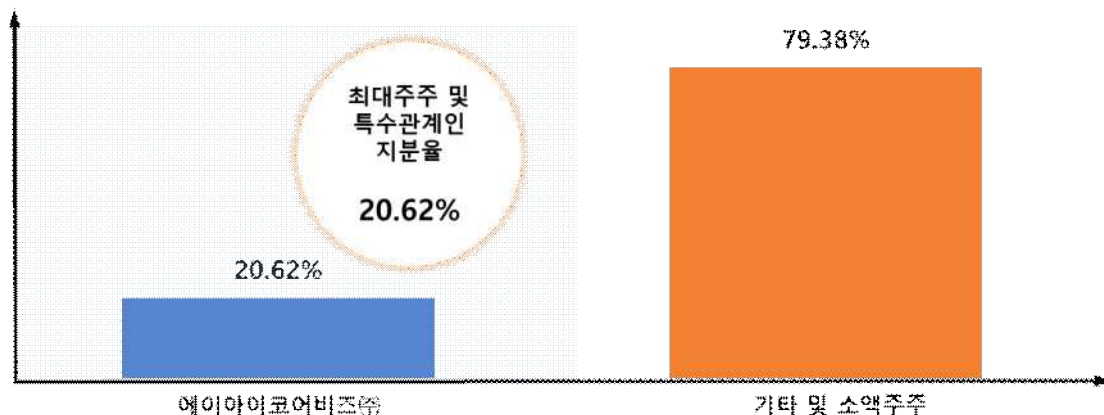
회사명	주요 사업	업계 현황	매출액(백만 원)*
티더블유인베스트먼트(주)	투자 및 금융 관련 사업	국내외 벤처 및 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세 지속 중이며, 모회사의 센서·반도체 기술 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534

* 2025년 3분기 결산 기준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2024년 12월 사업보고서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에이아이코어비즈(주)로 전체 지분의 약 20.62% (13,059,697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 기타 주주 및 소액투자자가 나머지 79.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3월 최대주주가 남용현 대표이사에서 에이아이코어비즈(주)로 변경되었다.

그림 2. 주주현황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및 매출현황

동사는 센서 및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단일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분야는 자동차용 변위센서(APS·BPS·SLS)와 적외선(IR) 열영상 센서 및 카메라 모듈이다. 센서 부문은 자동차 1차 벤더향 공급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반도체 부문은 적외선 검출소자, 영상처리용 칩셋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3분기 보고서 기준, 동사의 전체 매출 중 제품매출은 84.7%를 차지하며, 이는 자동차용 APS(Accelerator Pedal Sensor), BPS(Brake Pedal Sensor), SLS(Stop Lamp Switch), IAPS·CNAPS·NAPS 등 인덕티브 기반 포지션 센서, HALL IC 센서, 솔레노이드 및 PWM HI 콘솔 컨트롤러, 그리고 비냉각식 적외선 열영상 센서 및 ‘퀵텀레드 미니’ 적외선열영상카메라(OEM) 등 회사가 직접 제조하는 핵심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매출은 8.6% 수준으로, 외부에서 매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전장 부품, 기타 센서 관련 보조부품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TPS/ACTUATOR 등으로 구성된 기타매출이 약 6.7%를 차지한다. 향후 동사는 자동차 중심의 센서 매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산업·국방·모빌리티·보안 시장을 중심으로 IR 센서 및 열영상 모듈 사업을 확대하여 매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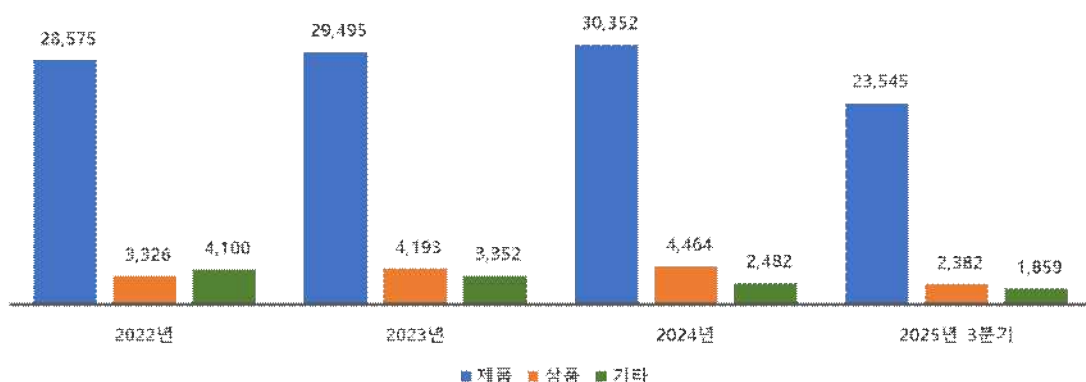
표 2. 사업 분야

사업 부문	품목(유형)	주요 사업의 내용	매출액 (백만 원)	매출 비중(%)
제품	자동차용 센서,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 등	엑셀·브레이크·변속 위치를 감지하는 자동차용 변위센서(APS·BPS·SLS) 및 적외선 열영상 센서·카메라 모듈을 개발·생산하고 있음. 주요 매출처는 자동차 1차 벤더로, 차량 제어 및 안전 시스템에 적용됨.	23,545	84.7
상품	상품 매출	센서·전장 관련 부품 및 기타 소자류(매입 판매)	2,382	8.6
기타	TPS/ACTUATOR 외	-	1,859	6.7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3. 사업부문별 매출액 구조

(단위: 백만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 시장 동향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센서 및 적외선 기술, 국방·모빌리티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 전망
센서 및 반도체 산업은 항공우주, 국방, 자율주행 모빌리티, IT, 산업안전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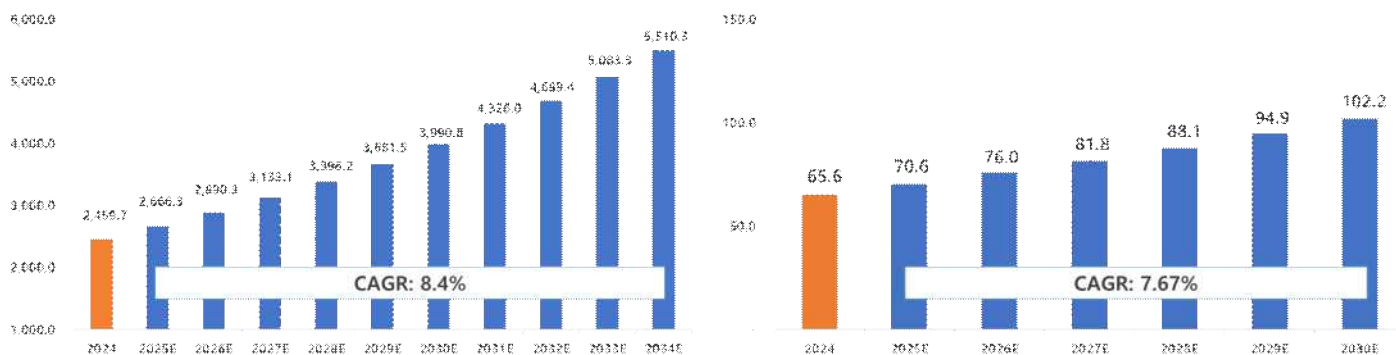
■ 센서 산업

센서 산업은 IoT,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기술 기반 산업이다. 소형화, 고정밀화, 저전력화가 주요 기술 트렌드이며 AI와 결합한 스마트 센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산업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센서는 데이터 수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 진입장벽이 높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역량이 기업경쟁력을 좌우한다.

■ 센서 시장 규모 및 전망

시장조사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센서 시장은 2024년 2,459.7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8.40%로 증가하여 2034년에는 5,510.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Mordor Intelligence의 한국 센서 시장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해당 시장은 2025년 70.6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67%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102.2억 달러의 시장규모가 전망된다.

그림 4. 세계(좌) 및 국내(우) 센서 시장(단위: 억 달러)



출처: Precedence Research(좌), Mordor Intelligence(우),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적외선(IR) 열영상 및 센서 시장

적외선(IR) 열영상 및 센서 시장은 물체의 복사열을 적외선 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영상화하거나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이다. 자율주행차량의 야간·악천후 인지, 드론 및 국방 감시 플랫폼, 산업 설비의 열 진단 및 안전 모니터링, 보안 및 스마트 시티 인프라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적용처가 존재한다. 냉각식 및 비냉각식 기술, 고해상도·저노이즈 센서, 모듈화·AI 영상처리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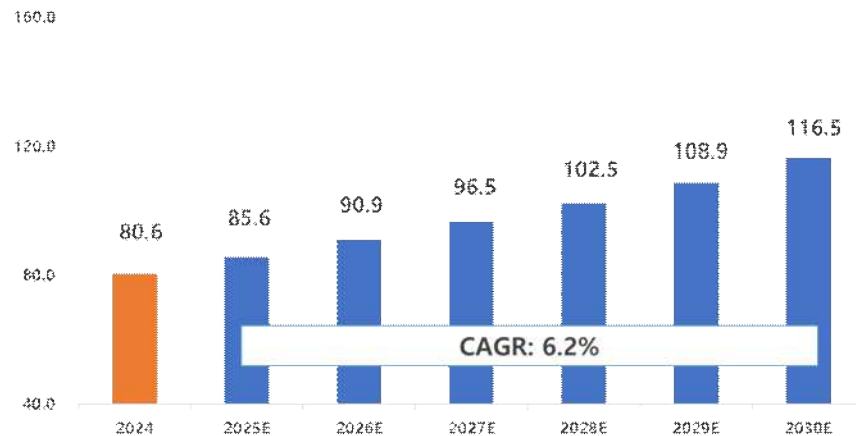
■ 적외선(IR) 열영상 및 센서 시장 규모 및 전망

“Infrared Imaging Market Size, Share & Trends” - MarketsandMarkets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적외선 영상 시장이 2024년 약 80.6억 달러였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6.2% 성장해 2030년에는 116.5억 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이는 연평균 비냉각식 열영상 센서·카메라를 중심으로 방산·보안·산업

엣지파운드리(105550)

자동차·자율주행 분야의 수요 확대가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시장은 고감도 영상 기술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시장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비냉각식 IR 센서와 열영상 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하는 동사에게 적외선 열영상 센서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성과 높은 부가가치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목표시장으로 평가된다.

그림 5. 글로벌 열영상 및 센서 시장 규모(단위: 억 달러)



출처: MarketsandMarkets,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주요기관별 시장전망

센서 시장은 2024년 2,502억 달러에서 2032년까지 약 17.3%의 CAGR로 성장하여 6,522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Market Research Future

글로벌 센서 시장 규모는 2024년 2,459억 7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8.40%로 증가하여 2034년에는 5,510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Precedence Research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6,134억 3천만 달러에서 1조 3,054억 3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기간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약 9.9%로 예상됩니다.

— Stellar Market Research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6,810억 5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14.9%로 증가하여 2032년에는 2조 625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Fortune Business Insights

■ 경쟁업체 현황

센서 및 반도체 산업은 자율주행, 스마트홈, 산업 자동화,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 확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고정밀·고신뢰성 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동사를 비롯해 아이쓰리시스템㈜, 암페놀센싱코리아㈜, (주)루멘스, (주)엠씨넥스 등이 센서 및 반도체 관련 부품·모듈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업체들의 제품 특성과 시장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3.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경쟁업체
아이쓰리시스템㈜	- 국내 적외선(IR) 영상센서 및 열화상 모듈 분야 선도기업으로, 냉각형·비냉각형 센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 - 국방 감시·정찰, 산업용 열화상 장비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방산 및 보안용 IR 센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 독자적인 센서 칩 설계 및 패키징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입 대체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암페놀센싱코리아㈜	- 온도·습도·압력·적외선 센서 등 다양한 환경 센서 제품을 개발·양산하며, 자동차 및 산업 전자부품 시장에 공급 중임. - 글로벌 센서 전문기업 Amphenol Sensors Group의 한국 법인으로, 고정밀 센서·모듈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차량용 및 산업용 IoT 응용 분야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지속 공급하며, 국내외 주요 완성차 및 전자업체와 협력 중임.
(주)루멘스	- 광센서 및 적외선(IR) 센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차량용 라이다, 디스플레이 광학 모듈 등으로 응용 범위를 확대 중임. - 글로벌 디스플레이 및 전자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ODM/CM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감도 광센서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및 스마트 조명 분야로 진출 중임.
(주)엠씨넥스	- 차량용 영상센서, 적외선 센서, CMOS 이미지센서 모듈을 제조하며, 현대·기아차, 테슬라 등 주요 완성차 제조사에 납품 경험이 있음. - 차량용 ADAS 및 스마트카 확산에 발맞춰 고해상도, 고내열성 센서 모듈을 개발하며 최근엔 고정 자동화 기반의 생산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음.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열영상 센서 산업은 자율주행, 방위산업, 산업안전, 드론, 의료·보안 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성장 산업이다. 특히 기후 변화, 산업 자동화,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에 따라 비냉각형 적외선(IR) 열영상 센서의 적용 범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고감도·소형화·저전력화 기술 개발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III. 기술분석

적외선 센서 및 반도체 기반 정밀 감지 기술력 보유

동사는 자동차용 변위센서와 적외선(IR) 열영상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핵심 칩 설계부터 모듈 제작까지 자체 생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비냉각식 적외선 센서, 영상처리 반도체, 광학 모듈 등의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국방·산업안전 분야로 응용을 확대 중이다.

■ 주요 제품

동사의 주요 제품은 자동차용 변위센서, 적외선(IR) 열영상 센서 및 카메라 모듈, 반도체 칩 및 관련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제품군은 자체 설계·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

자동차용 센서 부문은 동사의 핵심 매출 기반으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HL만도 등 주요 완성차 및 1차 벤더에 공급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의 조작량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APS, 브레이크 페달의 압력을 감지하여 ECU로 전송하는 BPS, 그리고 인덕티브 방식의 스톱램프 스위치인 SLS가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기존 기계식 접점방식의 단점을 개선하여 내구성과 응답속도를 높였으며, 소음이 적고 정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해당 센서는 제네시스 GV80, 아이오닉5, EV6, 그랜저, 쏘나타, 스포티지 등 주요 차종에 적용되고 있으며, 포드, 니오(NIO), 빈패스트 등 해외 완성차 업체에도 공급되고 있다.

적외선(IR) 열영상 센서 및 카메라 모듈 부문은 동사의 신성장 사업 영역으로, 한화시스템과의 합병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화되었다. 동사는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구조를 기반으로 한 적외선 센서를 개발하여 QVGA(320×240) 해상도급 센서의 양산에 성공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VGA(640×320)급 제품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CMOS 표준 공정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냉각식 대비 원가 절감과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주요 제품으로는 ‘퀀텀레드(Quantum Red)’ 지능형 열상엔진 모듈이 있으며, 이는 국방용 조준경, 자율주행 나이트비전(NVS), 긴급제동(AEB), 차량 내 인원 감지(CPD)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반도체 및 MEMS 기반 제품 부문에서는 센서의 신호를 감지하고 변환하는 반도체 칩과 검출소자 등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IR 센서 및 자동차용 센서에 활용되는 MEMS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신호처리용 ROIC 칩과 마이크로 볼로미터 어레이(MBA)를 자체 공정으로 제작하고 있다. 또한 센서 소재로 바나듐 옥사이드(VOx)와 비정질 실리콘(a-Si)을 병행 적용함으로써 고감도·저전력 제품부터 대량 양산형 센서까지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생산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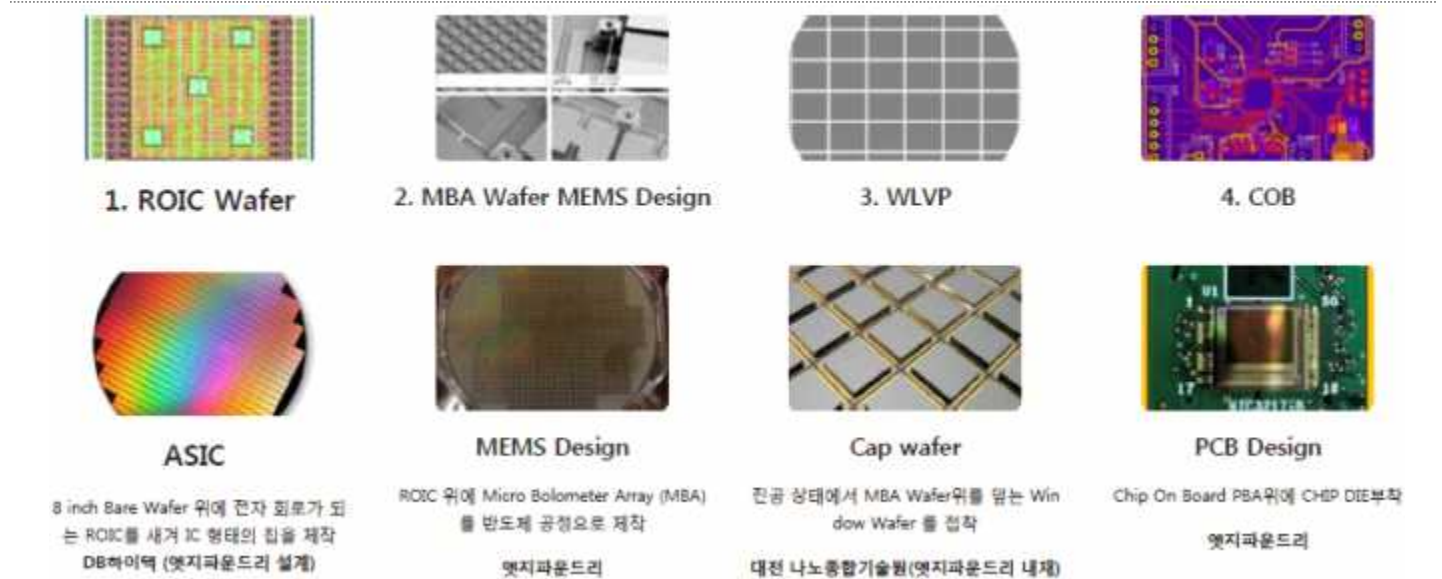
동사는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열영상 센서의 양산을 겨냥해 설계→웨이퍼 공정→밀봉(WLVP)→조립(COB)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생산 플로우를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ROIC(읽기회로)는 DB하이텍에서 동사 설계로 제작, 그 위에 마이크로볼로미터 어레이(MBA)는 동사가 반도체 공정으로 직접 형성, 이후 윈도우 웨이퍼 접합(WLVP)은 대전 나노종합기술원 인프라와 연계, 마지막 COB/보드 부착은 동사가 수행하는 구조다.

이 생산 체계는 증착→코팅→포토→식각→세척 등 표준 반도체 공정 기반으로 운용되며, 동사는 VOx, a-Si, TiOx, SiGe 등 다양한 센서 재료 스택을 적용한다. 또한 탄소(카본)계 희생층 공정을 도입하여 폴리이미드 대비 웨이퍼 평균 수율을 약 98% 수준까지 끌어올린 최근 생산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어 공정 안정성과 대량생산 적합성을 뒷받침한다.

제품 로드맵 측면에서 동사는 QVGA(320×240)급 열영상 센서의 양산개발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 양산에 돌입했으며, VGA(640×320)급은 2026년 상반기 개발 완료 목표를 제시한다. 현재 전략은 수요가 가장 큰 QVGA에 집중하면서 VGA 시장 침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동화 설비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대량생산 라인 구축을 병행 중이다.

한편, 자동차용 변위센서(APS·BPS·SLS)는 다년간 축적된 양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국내외 완성차/1차 벤더향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BPS·SLS는 현대·기아 주요 차종 및 전기차(EV6·아이오닉5 등)에 적용되고, 해외로는 포드·니오(NIO)·빈페스트 등으로 확장되는 등 수주 변동에 대응 가능한 양산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IR 센서·자동차 센서 생산과 MEMS 파운드리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을 주도한다.

그림 6. 동사의 제품생산 제조 Process



출처: 동사 IR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자동차용 센서 및 비냉각식 열영상 센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의 내재화와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주요 연구개발 방향은 MEMS 기반 센서 구조 설계, 영상신호처리 칩(ROIC) 설계, 마이크로볼로미터 어레이(MBA) 제작 공정 등으로, 핵심 부품의 독자적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센서 칩 설계에서부터 모듈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 자립화를 달성하였으며, CMOS 표준 공정을 활용한 비냉각식 적외선 센서 양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2025년 3분기 기준 동사의 연구개발비는 약 11억 원 규모로 매출액 대비 3.88% 수준이며, 최근 3년간 3~5%대의 안정적인 투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 과제로는 QVGA(320×240)급 비냉각식 열영상 센서의 양산 안정화 및 VGA(640×320)급 고해상도 센서 개발, 탄소계 희생층(Carbon Sacrifice Layer)을 이용한 공정 개선을 통한 웨이퍼 수율 향상, VOx 및 a-Si 기반 소재의 내열성 강화 및 신뢰성 개선, 자동차용 브레이크·엑셀·변속 감지용 센서의 정밀도 향상, AI 기반 영상신호 보정 및 인식 알고리즘 개발 등이 있다.

동사는 대전 나노종합기술원과의 협력을 통해 WLVP(진공 접합) 및 COB(Chip on Board) 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열영상 센서의 주요 공정 단계를 내재화하였다. 또한 국방, 산업,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AI 융합형 지능센서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향후 동사는 MEMS 공정 및 반도체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고신뢰성 열영상 센서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AI 영상 인식 기술과 결합하여 국방·보안·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응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표 4. 동사 연구개발 현황(일부)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및 결과
2D 압전 소재 기반 마이크로폰 MEMS 공정개발	2D 압전 소재를 활용한 MEMS 마이크로폰 공정 설계 및 단위공정 기술 개발 4-6inch 대면적 실리콘 기판 기반 MEMS 공정 최적화 및 대량생산 기술 확보 - 벌크 마이크로머시닝 공정을 적용하여 수율 향상 및 국산화 기반 MEMS 기술 확보
열화상 카메라 솔루션 개발 (엣지 디바이스·전용 플랫폼 탑재)	- 엣지 디바이스 및 전용 딥러닝 플랫폼을 결합한 열화상 카메라 솔루션 개발 - AI 기반 동물체 추적 및 자동 제어형 열화상 측정 시스템 구축
12μm 픽셀 기반 QVGA 해상도 비냉각 열영상센서 개발	12μm 픽셀 기반 QVGA급 초소형 비냉각식 열영상 센서 및 모듈 개발 - 공정 단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열영상 수율 10% 이상 개선 목표
IPS(Inductive Pressure Sensor) 개발	- Core 구조 및 ASIC 회로를 포함한 압력센서 원천기술 확보 - 차량용 압력센서의 내구성 및 정밀도 개선, 국내외 시장 대응 제품 상용화
전자식 Inductive Sensor(SATS) 개발	- Inductive 기반 토크센서 설계 및 Wide-Angle Torque 기술 확보 - 국내 유일의 인덕티브 방식 토크센서 기술 상용화 및 차량용 모듈 적용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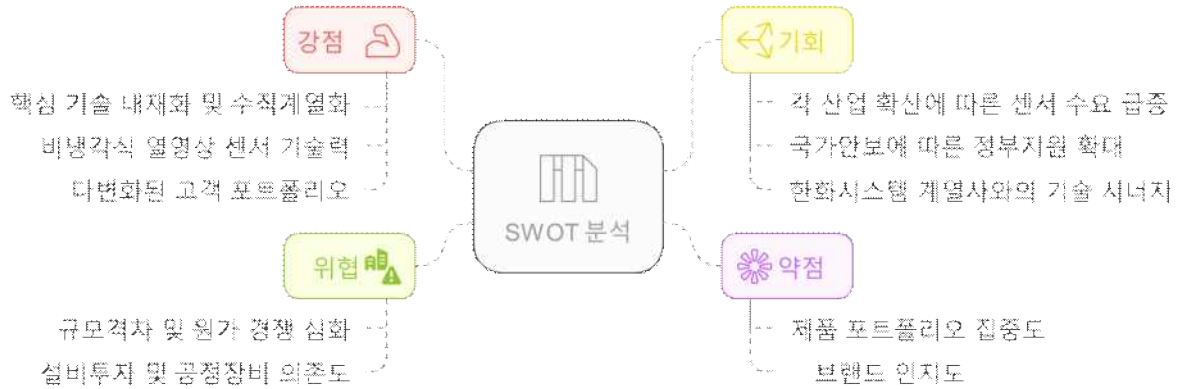
■ 기술 진입장벽

동사는 핵심 기술의 내재화와 강력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통해 외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센서 및 반도체 핵심 부품의 설계, 공정, 패키징, 테스트를 모두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수직계열화된 생산 시스템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품 품질과 공정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일체화된 제조 체계는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신뢰성 센서 양산에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비냉각식 열영상 센서 분야에서 바나듐옥사이드(VOx) 및 비정질 실리콘(a-Si) 소재 기반의 공정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탄소계 희생층(Carbon Sacrifice Layer)을 적용하여 공정 안정성을 높이고 웨이퍼 수율을 95% 이상으로 개선하였다. 이는 CMOS 표준 공정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해외 선도기업 대비 높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SWOT 분석

(주)엠텐파운드리 SWOT 분석



1. 강점 (Strengths)

- 핵심 기술 내재화 및 수직계열화: 설계-공정-패키징-모듈화 전 과정의 자체 수행 능력을 확보하여 외주 의존도가 낮고 기술 유출 위험이 적음.
- 국내 유일 수준의 비냉각식 열영상 센서 기술력: VOx 및 마이크로볼로미터 어레이(MBA) 제작 기술과 CMOS 공정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원가 경쟁력과 대량생산 체계를 동시에 보유함.
- 자동차 · 국방 · 산업 분야의 다변화된 고객 포트폴리오: 변위센서(APS · BPS · SLS)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면서, 열영상 센서의 응용처를 국방 · 보안 · 자율주행으로 확장 중임.

2. 약점 (Weaknesses)

- 제품 포트폴리오의 집중도: 자동차용 센서 및 IR 열영상 기술에 매출이 집중되어 경기변동 · 수요변화에 따른 실적 민감도가 존재함.
- 브랜드 인지도 및 해외 네트워크 한계: 글로벌 OEM · Tier1 시장 진입은 진행 중이나, 인지도와 납품 레퍼런스 확대가 필요함.

3. 기회 (Opportunities)

- AI · 자율주행 · 국방 · 스마트시티 확산에 따른 센서 수요 급증: 비냉각식 열영상 센서와 인덕티브 센서는 자율주행차, 산업안전, 방산 감시장비의 핵심 기술로 부상 중임.
- 국산화 · 안보 이슈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국방 · 산업용 센서의 국산화 과제 확대 및 정책적 R&D 보조금 지원 가능성 높음.
- 한화시스템 계열사와의 기술 시너지: 합병을 통한 국방 · 우주 · 항공 영역의 공동기술개발 및 납품망 확장으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함.

4. 위협 (Threats)

- 글로벌 대형 센서 기업과의 규모격차 및 원가 경쟁 심화: Lynred, Teledyne, FLIR 등 글로벌 선도 기업 대비 생산설비 규모와 마케팅 네트워크의 제한이 존재함.
- 고가의 설비투자 및 공정장비 의존도: MEMS · IR 공정 장비의 국산화율이 낮아 설비 유지 ·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이 상존함.

IV. 재무분석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

2024년 동사는 NAPS 품목 매출 확대로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억 원 증가하였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주식보상비용 인식 등으로 영업손실이 3억 원 증가하였으나, 기타수지 개선으로 당기순손실 규모는 33억 원 축소되었다. 2025년 3분기에도 영업손실 규모가 축소되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이 회복되었다.

■ 매출 증가세 유지

동사는 센서 전문기업으로 엑셀, 브레이크 페달 센서, 적외선 열영상 센서 및 모듈 등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 자동차용 센서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2024년 결산 기준 전체 매출의 10.8%는 BPS 품목, 25.2%는 SLS 품목, 20.2%는 NAPS 품목이 차지하며 주요 매출을 구성한다. 동사의 최근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36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한 이후 2023년에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의 공급 증가로 BPS, SLS 등의 매출이 확대되며 전년 대비 2.9% 증가한 370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 동사 매출은 BPS,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 등 주요 품목의 매출 부진에도 NAPS 품목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 대비 3억 원 증가하였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2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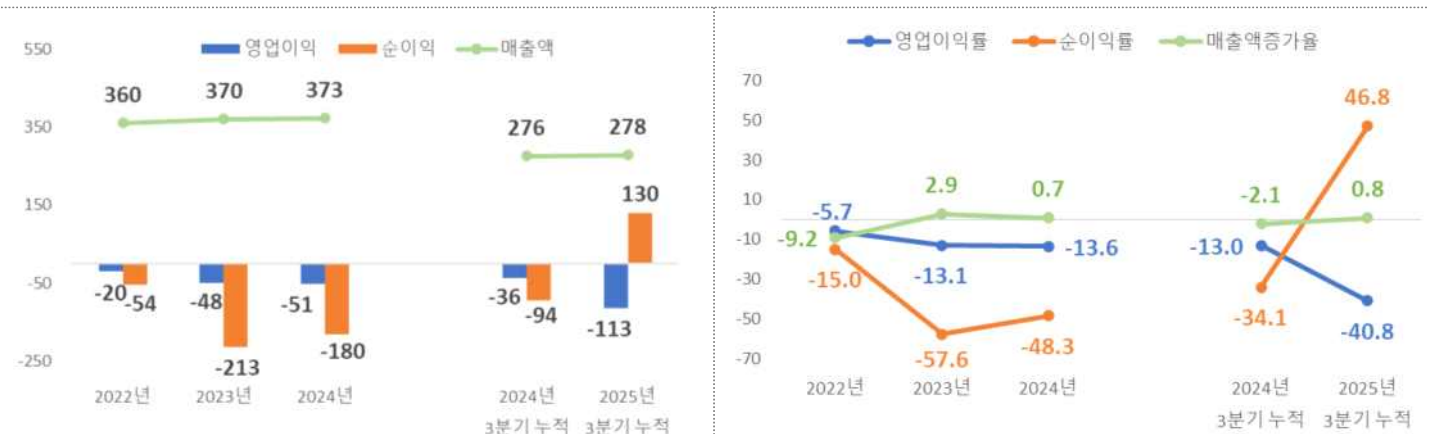
■ 2025년 3분기 영업손실 확대에도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2023년 동사 매출은 전년 대비 10억 원 상승하였으나, 원가 상승과 함께 지급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 등 판관비가 증가하며 영업손실 규모가 28억 원 확대되었다. 더불어 한화인텔리전스 관련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이 발생하고,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 관련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모형 적용에 따라 대손상각비가 급증하며 당기순손실 또한 전년 대비 159억 원 확대되어 213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에도 매출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주식보상비용 인식으로 판관비가 증가하며 영업손실은 3억 원 확대되고, -13.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은 기타수지가 개선되며 적자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23년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 파생상품평가손실 등으로 -180억 원을 나타내었다. 2025년 3분기에는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기타손실 감소와 금융수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130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다소 회복되었다.

그림 7.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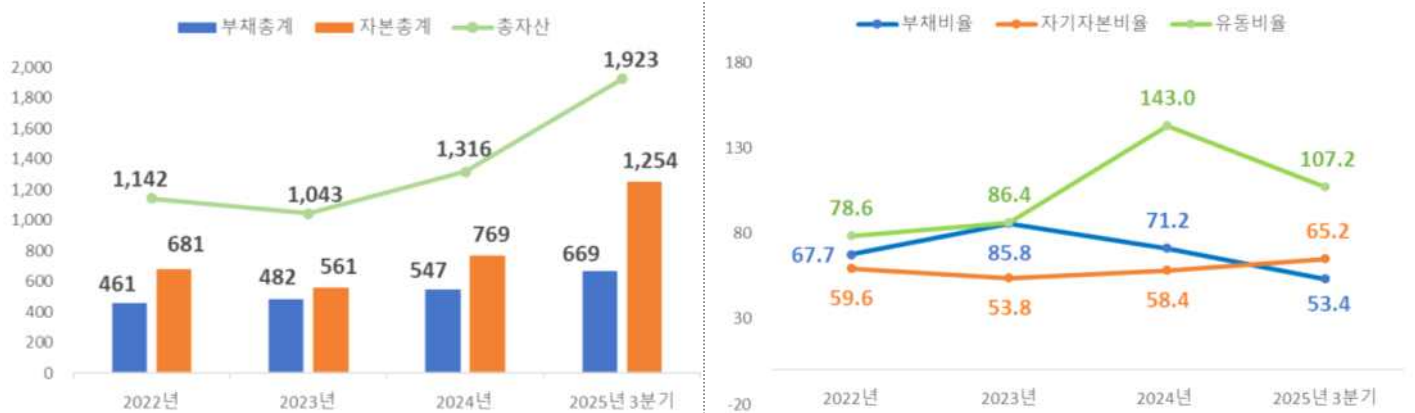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재무건전성 개선

2023년 동사는 유동자산이 55억 원 증가하였음에도 관계기업투자자산 등 비유동자산이 크게 감소하며 총자산이 전년 대비 99억 원 축소되고, 부채총계는 유동부채의 증가로 21억 원 확대되었다. 유동자산의 증가율이 유동부채의 증가율을 상회하며 유동비율은 전년 대비 7.8%p 상승한 86.4%를 기록하였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8.1%p 상승, 자기자본비율은 5.8%p 하락하였다. 2024년에는 유동금융자산 확대의 영향으로 총자산은 273억 원 증가하였고, 부채총계가 65억 원 증가하며 자본총계가 208억 원 확대되어 769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유동비율은 전년 대비 56.6%p 증가하고, 자본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은 14.6%p 하락, 자기자본비율은 4.6%p 상승하였다. 2025년 3분기에도 총자산은 607억 원 증가하였으나, 유동부채의 증가로 유동비율은 35.8%p 하락하여 107.2%를 기록하였다. 자본이 485억 원 증가하며 부채비율은 53.4%로 하락, 자기자본비율은 65.2%로 상승하였다. 동사는 2025년 유동비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개선의 흐름을 보였다.

그림 8.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5.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3분기 누적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	360	370	373	276	278
매출액증가율(%)	-9.2	2.9	0.7	-2.1	0.8
영업이익	-20	-48	-51	-36	-113
영업이익률(%)	-5.7	-13.1	-13.6	-13.0	-40.8
순이익	-54	-213	-180	-94	130
순이익률(%)	-15.0	-57.6	-48.3	-34.1	46.8
부채총계	461	482	547	383	669
자본총계	681	561	769	706	1,254
총자산	1,142	1,043	1,316	1,089	1,923
유동비율(%)	78.6	86.4	143.0	108.0	107.2
부채비율(%)	67.7	85.8	71.2	54.3	53.4
자기자본비율(%)	59.6	53.8	58.4	64.8	65.2
영업현금흐름	36	-33	-31	-25	-79
투자현금흐름	-70	12	-115	-87	-186
재무현금흐름	-44	2	394	130	65
기말 현금	23	4	251	22	5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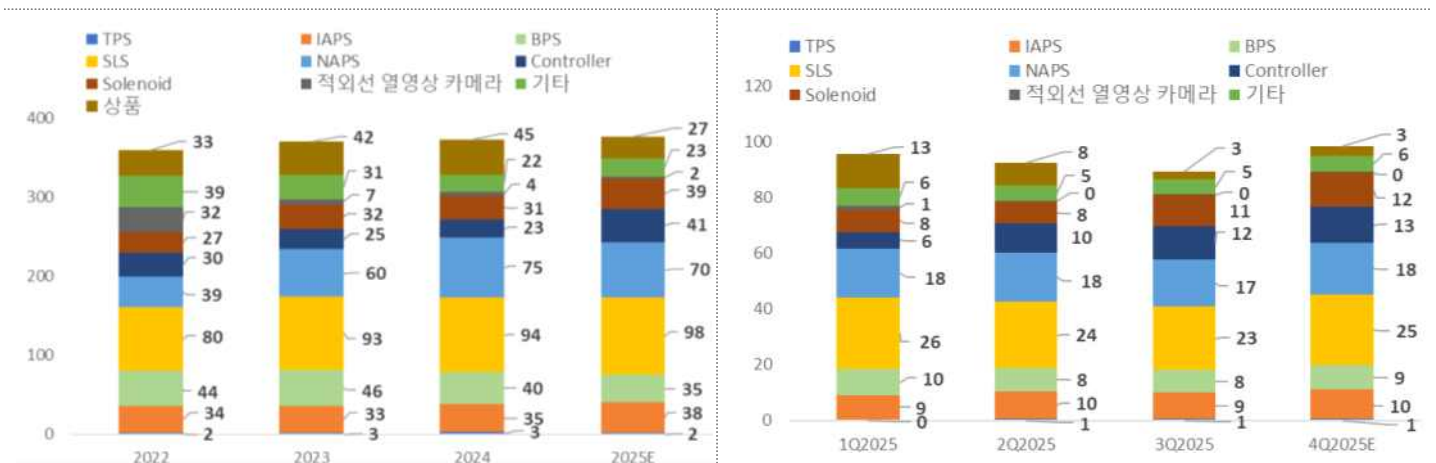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인쇄전자, 전자기응용, 열영상 적외선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및 산업용 센서를 개발·제조·공급하는 센서 전문기업으로, APS·BPS·SLS 등 핵심 제품을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납품한다. 특히 전기차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BPS와 SLS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포드·니오(NIO)·빈페스트 등 글로벌 고객사로 공급망을 넓혀가고 있다. 적외선 열영상 분야에서는 한화시스템과 협업해 ‘퀀텀레드’ 및 ‘퀀텀레드 미니’ 카메라를 OEM 방식으로 공급하며 센서·모듈·시스템까지 수직계열화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자동차 센서 시장이 Bosch·Continental·Denso 등 선도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 속에서 전자식 센서 기술과 모듈화 능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동사는 전자식 Inductive 방식의 원천기술과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a-Si 기반 마이크로볼로미터 기술을 통해 기존 VOx 기반 대비 원가절감과 양산 수율 향상에 성공하며 민수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AI 기반 화재 예측 시스템 ‘TRUSafer’를 전개하며 산업 안전 분야로 진출하고, 한화인텔리전스와의 협업을 통해 2024년 QVGA 센서 양산, 2025년 VGA 센서 개발을 추진하며 차량·모바일용 적외선 센서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사는 전장화·자율주행 확대, 민수용 열영상 수요 증가, 정부 K-센서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세가 전망된다.

그림 9.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반기보고서(2025.06.),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6.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	2023	2024	2025E	1Q2025	2Q2025	3Q2025	4Q2025E
매출액	360	370	373	376	96	93	90	98
TPS	2	3	3	2	0	1	1	1
IAPS	34	33	35	38	9	10	9	10
BPS	44	46	40	35	10	8	8	9
SLS	80	93	94	98	26	24	23	25
NAPS	39	60	75	70	18	18	17	18
Controller	30	25	23	41	6	10	12	13
Solenoid	27	32	31	39	8	8	11	12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	32	7	4	2	1	0	0	0
기타	39	31	22	23	6	5	5	6
상품	33	42	45	27	13	8	3	3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반기보고서(2025.06.),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열영상·자율주행·국방 분야로의 확장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동사는 기존 자동차용 센서 중심에서 벗어나 비냉각식 열영상 센서, AI 융합 영상모듈, 국방·보안용 고성능 센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산업안전, 항공·국방 등 신규 응용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기술 기반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 응용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영역 확장

동사는 최근 비냉각식 열영상 센서 기술의 상용화를 중심으로 기술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용 변위센서 사업에서 확보한 정밀 신호처리 및 MEMS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IR 센서·영상처리 칩·AI 융합 모듈로 기술 확장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화시스템과의 합병을 통해 국방·항공·보안 분야로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해상도 VGA급 센서와 AI 기반 열화상 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고감도·저전력형 차세대 센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동사는 단순한 부품 제조 단계에서 벗어나 센서-칩-소프트웨어 통합형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기존 하드웨어 기술력에 AI 및 반도체 알고리즘 역량이 결합된 형태로, 중장기적으로 국방·자율주행·스마트시티·의료 이미징 등 고부가가치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또한 CMOS 표준공정을 적용한 IR 센서의 대량 양산 체계와 95% 이상의 웨이퍼 수율 확보는 생산성·원가경쟁력·수익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강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동사는 AI 기반 지능형 센서 플랫폼과 고감도 열영상 모듈의 완전 내재화를 통해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 변동은 향후 국방 및 산업안전 인프라 분야의 국산화 수요와 맞물려 장기적 기술투자 가치가 높은 성장 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

☑ 프롬프트: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엠텐파운드리는 센서 및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최근 비냉각식 열영상 센서와 AI 융합 모듈을 중심으로 자율주행·국방·산업안전 등 고부가가치 응용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매출 성장세가 일시 둔화되었으나, 이는 합병 이후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일시적 제품 전환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회사는 자동차용 변위센서의 안정적 매출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IR 센서의 해외시장 진출과 AI 영상처리 기술 상용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스마트시티·자율주행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국산 센서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 출처: Chat GPT

엠텐파운드리는 자동차용 변위센서와 비냉각식 열영상 센서를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센서 전문기업으로, 최근 AI 영상처리 및 국방용 센서 솔루션 분야로 기술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기존 자동차 부품 시장의 수요 조정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신규 열영상 센서 라인업의 양산 전환과 해외 전시회 참여를

엣지파운드리(105550)

통한 수출 채널 확대에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매출 회복이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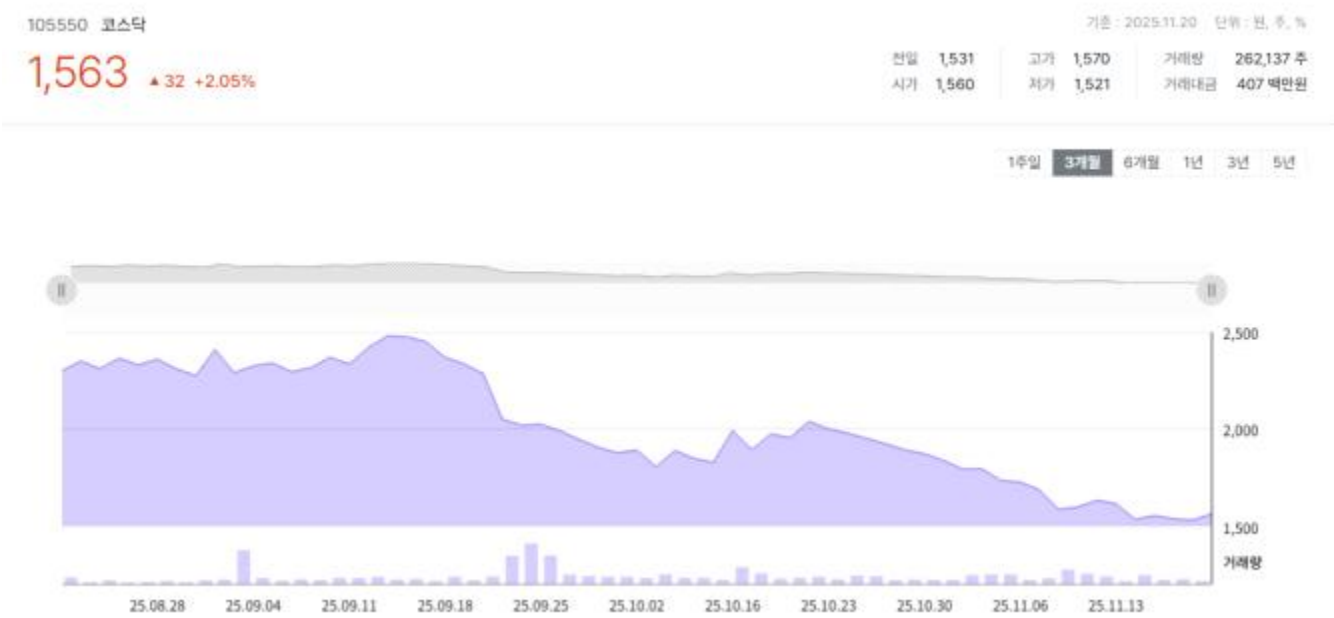
최근 주가는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수 확대와 열영상 기술 상용화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세를 보였으며, 시장에서는 엣지파운드리가 국산 열영상 센서 분야의 대표 성장주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AI 융합형 센서 플랫폼 사업을 통해 산업용·국방용·자율주행용 센서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며, 기술 내재화에 따른 원가 절감과 글로벌 진출 강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뽀튼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최근 6개월 내 발간 보고서 없음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5.11.2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 근거: 시장감시 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엣지파운드리(주)	X	X	X